

월요광장

공유가치 경영의 시대에 6·4 지방선거를 보는 눈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미래가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증거는 많다. 6000만 여명이 사망한 2차 세계대전은 그 당시 한국이 건강한 독립국가로 존재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의 한국은 G1(미국), G2(중국), G3(일본) 및 G7(아시아)과 군사적 국경을 접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국가이며, 경제규모 G14 국가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권을 회복한 국가로는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원조수여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된 나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즉각 치유되어야 할 참담한 현실이 놓여있다. 답합과 선산식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한 개발사회의 국가경영 시스템은 혁신과 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하는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관 주도로 급성장한 재벌체제는 벤처와 창

업 성공, 사회의 역동성을 돕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양극화 심화, 공공부문과 대기업 고용, 전문직 양성과정의 폐쇄성 등이 가세하여 한국사회는 이제 부의 대물림뿐만 아니라 이권집단인 사회의 제의 소통권을 장악하는 신분의 고착화 징후까지 나타나고 있다.

OECD 평균의 4배에 달하는 노인 자살률, 그리고 세계 최저 출산율 등은 한국사회가 왜, 무엇 때문에 성장을 추구하고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급진 중심의 단일 성장가치의 압도적 우위와 지역편차는 공동체의 윤리 기반과 질서, 가정의 역할과 책무, 종교와 교육의 존재 의미까지도 현저하게 붕괴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이 꿈꿔왔던 민주주의와 산업화의 진정한 가치와 방향을 참으로 진지하게 성찰하고 학습하여 새로운 방향을 구축해야 할 시기가 이미 지났다.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은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진화를 도모하는데, 마케팅의 대부라고 일컫는 필립 코틀러 교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고객의 영혼을 고려하지 않는 마케팅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마케팅 3.0을 주장한다. 또한 아나톨 칼레츠키는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자유주의 1.0, 정부주의 2.0, 시장주의 신자유주의 3.0을

거쳐 이제는 적응성 혼합경제로서 유능한 정부와 따뜻한 경제를 실현하는 자본주의 4.0의 필요성을 설파한다.

그러나 더 큰 진화는 '공유가치창출 경영'의 등장에서 분명해진다. 공유가치경영은 고객(대상)의 혁신, 가치, 성공을 공유함으로써 고객(대상)과 나(우리)의 비전을 통합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갑과 을, 기업과 고객, 지역과 지역, 국가와 시민,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종업원, 선진국과 후진국 등이 별개로 번영한다는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유가치경영은 실재는 분리된 부분의 집합이 아니라 통합되어 있는 전체이며, 사회 시스템은 상호 의존하고 순환되는 의사소통의 연결망이고, 협동과 협력, 유연성과 다양성에 기초해 있음을 주장하는 논리와 일치한다.

공동체 질서와 민주주의, 평화와 인권 존중에 기반한 광주정신은 이러한 공유가치경영의 시대정신과 매우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가 보편적 인권 사상으로 진화하여 아시아와 전 세계가 이를 본받았으면 한다. 이는 이미 시민들이 주장한 대한민국헌법 제1조 2항을 지방행정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주요한 단서가 시작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

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이 지방행정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실천되고, 이러한 '민주공화국'의 실천 성과가 미국의 웰스트리트, 런던, 동경, 미안마, 캄보디아 등으로 전파되길 바란다. 국민이 자신의 삶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의사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정신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보편적 인권의 실천이 정부와 사회의 존재 이유 자리 잡았으면 하는 것이다.

필자는 오는 6·4 지방선거는 이러한 내용을 성찰하고 토의하며 다양한 실행방식을 나누는 모두가 참여하는 학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은 지능지역, 지능도시를 추구해야 하며 지능지역이 되기 위한 기준과 이에 적합한 사람을 키우고 선별하는 소통의 장이 활짝 열렸으면 한다.

세계적인 포럼에서 제시한 지능지역의 10대 특징은 '개방성, 비전, 리더십, 결합, 자기성찰, 지적자본의 윤리적 활용, 학습, 소통, 도전과 시도, 실험정신'이 충만한 도시와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우리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결단하는 진지한 통찰과 학습의 장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광주정신 세계화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社說

여수 기름유출 수사 총체적 부실이라니

지난달 31일 발생한 여수 기름 유출 사고가 11일째를 맞고 있으나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나 기름 유출량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총체적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는데도 8일이 넘도록 사실조사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불신을 키우고 있다.

해경은 현재 사고 원인으로 도선사의 '과속 접안'에 의한 충돌에만 무게를 두고 있을 뿐이다. 23년 경력의 베테랑 도선사가 접안을 시도하면서 통상적인 2~3노트를 넘어 7노트(시속 13km)의 빠른 속도로 돌진한 이유와 경위 등 수사 핵심은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름 유출량도 추정치에 불과하다. 해경은 송유관 중 파손된 부분과 밸브 사이에 들어있는 용량을 산출해 유출량을 16만4천ℓ로 추정했다. 그러나 GS 칼텍스 측이 사고 1시간여 뒤에야 밸브를 잠근데다 뒤늦게 전문가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부

실을 인정한 셈이다.

또 사고 유조선인 우이산호가 예정된 시각보다 부유에 65분이나 왜 일찍 도착했고, 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유도하는 해무사가 현장에 없었는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사고 당시 작업을 하던 이모(46)씨가 유조선이 잔교에 부딪치는 충격으로 바다에 추락했지만 해경은 8일 동안이나 현장에 있던 13명의 목격자를 조사하고서도 이씨의 부상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씨의 부상 장면은 소속 회사인 물론 GS 칼텍스 관계자도 목격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총체적 수사 부실은 무엇보다 사고 초기 해경의 안이한 대응에 있다.

해경은 사고 원인과 정황 규명이 핵심 소재를 가리고, 배상을 지우는 중대사건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기름 유출량 역시 피해 규모와 대응을 위한 핵심 자료가 된다. 따라서 해경은 조속히 사고 원인과 유출량 등을 밝혀내고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

쪼뼨한 광주 수돗물, 노후관 교체 시급하다

광주 수돗물의 위생상태가 미심쩍다. 땅속 3733km에 걸쳐 묻혀 있는 상수도관 노후가 심각해 시민 건강이 우려스럽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상수도관 교체 작업은 더디기만 해 시민은 불안하다.

광주지역에서 2012년 기준으로 시급히 바꿔야 할 노후관은 전체의 10%가 넘는 390km에 이른다고 한다. 매달 20년을 넘겨 부식된 탓에 이물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노후관은 정부가 10여년 전부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수도관으로 사용을 금지한 아연도 강관 등으로 시공돼 있어 문제가 많다.

노후관 교체제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돗물이 새는 누수를 또한 크게 높여 허튼이 쓰이고 있다. 광주의 누수율은 전국 7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두자릿수인 11%를 기록했다. 여기에 다른 도시들은 상황이 크게 호전되고 있지만 광주만 지난 2007년의 9%에서 되레 2%나 늘었다니 상수도 시책이 부실하

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시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예산 부족을 내세우고 있다. 시는 누수 등에 따른 적자를 수도요금 인상으로 보전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결산액이 134억 원에 이르다며 요금을 6.4% 올려 시민 부담으로 전가한 바 있다.

요금에 인상됐음에도 노후관 교체 사업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는 상수도 시설인 용연·지월정수장 공사과 도수터널 공사 등에 연간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어 수도관을 새로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정형편이 빠듯한 광주시의 어려움은 심본 이해한다. 하지만 매년 200억 원 이상을 노후관 교체에 지출해 2%의 누수율을 낮추고 있는 대전과 울산의 사례를 적극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질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강변만 할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개선책을 만들어 시민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자신의 공간과 폭력 그리고 상처



이지영 광주지검 형사2부 검사

되었다. 이전에 보성에서 일어났던 일명 '노인과 바다'라는 사건을 관심 있게 본 적이 있다. 이 사건은 보성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작은 선박을 가지고 선상낚시 영업을 하는 어부가 관광을 온 대학생 커플 등을 태우고 데려가 남학생을 먼저 살해하고 여학생에게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하려다 결국 살해한 사건이었다. 어부는 똑같은 방법으로 여성 2명을 배에 태우고 바다로 데려가 살해했다.

바다에서 뒤늦게 발견된 시신으로 인해 사건은 밝혀졌지만 70여 생을 같은 일을 해온 노인에게 살해당한 사람이 그 4명뿐일까 하는 생각이 두려움이 일었다.

사람들을 더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노인이 70대의 왜소한 체구의, 가족뿐 아니라 주변 누구도 그 노인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라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평범한 노인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범행이 밝혀진 후에도 그 노인이 했던 '왜 하필 내 배를 탔냐', "공짜로 태워준다고 하니가 좋아서 타서 이렇게 됐지"라는 충격적인 말이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그 노인이 자신의 배에서 잔인하게 젊은이들을 살해한 것이

단순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목적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됐다. 많은 성폭력사건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 동기에 대해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성폭력 가해자들의 대부분은 오히려 부인이나 연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성폭행을 부인하는 가해자들의 가장 흔한 변명이 "난 처도 있는데 내가 왜 저보다 나이 많은 여자를 강간하겠어요?"다.

보성의 노인은 배도 소유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공평한 상황이 아니어서 원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노인은 자신의 배에 올라탄 젊은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배 위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피해자 중 1명은 노인보다도 힘이 센 남자 대학생이었고, 그 옆에는 힘을 보탬 수 있는 여자친구도 있었다. 그럼에도 70대의 왜소한 노인을 이기지 못하고 살해당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다가 그 배 위에서만은 젊음이나 단순한 완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노인만의 '지배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바다에서 오로지 작은 배라는 공간, 그 공간에서 사람들은 어떤 재력으로 풀음도 통하지 않는 수십년간 어부생활을 한 노인이 '왕'이었고, 바다 밖에서는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하는 노인은 자신의 '왕국'에서 그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는 이곳 검사실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대부분 필자의 영역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피고사자로 온다. 보성의 사건을 보면서 혹시 필자도 이곳에서 당연히 검사로서 해야 할 임무를 넘어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않나 뒤돌아보곤 한다.

우리 모두는 각기 자신의 '힘'이 지배하는 공간이 있다. 누군가에게는 집이, 누군가에게는 직장인, 교실이 그런 공간, 즉 자신의 왕국일 것이다. 어른에게는 대화할 힘이 없는 어떤 학생도 친구들에게 자신의 '힘'이 통하는 교실에서는 소위 '왕'이라고 불리며 폭력을 휘두른다. 우리가 자신의 왕국에서 그 '힘'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뒤돌아보려면 조금은 더 나은 생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기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디자인으로 승부



이승욱 전남도 관광문화국장

1990년대 이후 제품의 성능 및 기업 간 기술격차가 줄어들자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디자인을 통해 상품혁신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또 2000년대에 들어서자 창조와 혁신이 기업경영의 화두로 등장한 후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활동 전반에 창의적인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11년 4월 '디자인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공표하여 디자인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디자인기업·전문인력의 고도화, 미래지향적 디자인 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통해 2015년까지 디자인 경쟁력 세계 7위권 수준의 국가를 만들 계획이다.

전남도는 선도적으로 친환경 디자인정책을 시행해왔다. 2008년 7월 공공디자인과를 신설한 후,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했고, '친환경 녹색디자인'으로 전남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또 2013년부터는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사전경관협의제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경관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으로 주변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맑은 물, 청정한 공기, 비옥한 땅, 온화한 기후조건을 구비한 장점을 바탕으로 한 전국 최고의 친환경 농업지역이다. 이러한 천혜의 조건에서 고품질 농수축산물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가공 및 포장 등의 기술력이 열악하여 상품성이 저하되고,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중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 디자인정책에다 농수축산물을 융합한 디자인박람회를 기획하게 됐다.

'2016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는 정부로부터 국제행사승인을 받아 '녹색의 땅, 친환경디자인'이라는 주제로 2016년 5월 5일부터 5월 29일까지 25일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개최된다. 여기에는 3개 주제관과 3개 특별시설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제관은 스마트그린관, 예곡농수산물, 미래관으로 구성되어 국내외 고품질 농수산물과 전통식품, 친환경 농수축산물 등 각종 농수산물 디자인 전시 및 판매장이 운영되고, 국내외 농수산물 전문기업 홍보전 시도 이루어진다. 특별관은 전통공예관, 남도문화관, 국제관 등으로 구성되어 전남이 가진 경관·역사·문화·음식 등 관광문화자원이 디자인 방법론을 접목해 새로운 디자인 영역을 창출하고 국제적 변화를 반영하며 세계적 디자인상품을 한자리에 모아 국제적 감각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꾸밀 예정이다.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친환경 고품질 농수축산물에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을 가미하여 우리 지역의 농수축산물 판로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단순한 생산판매로 이어지던 유통경로에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미한 명품 농수축산물은 FTA 등의 개방경제체제하에서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초등학생 시절, 감아지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었다. 1970년대 농촌이다보니 요즘처럼 에어컨이나 반려동물이니 하는 개념도 없던 때다.

3살 터울인 누나와 나는 잠중엔이지만 해마다 갓 난 감아지를 애지중지 키웠다. 부모님의 성화에도 밤상에 감아지를 데려다놓고 잠자리에 들 때도 이불에 넣고 함께 잤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반기는 감아지를 안고 코에 불을 대곤 했다. 축

름을 지어 가족으로 맞았다.

유난히 호기심이 많고 겁이 많은 누이라 집에선 천방지축으로 뛰어 다니다가도 낯선 사람과 접촉하면 숨어 버린다.

처음에는 알맞은 돌 알았는데 병원에 데려가니 수컷이라란다. 종성화 수술비로 15만 원이 들었고, 사료·간식비가 고정적으로 나간다. 얼마전에는 구토로 병원에 갔더니 진료비로 10만 원 가까이 나왔

반려동물

하지만 1년쯤 키워 성견이 되면 꼭 돌림병에 걸려 죽곤 했다. 뒷마루 밑에 들어가 온몸을 부딪치며 뛰다 죽는 모습을 목격할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다시는 안 키우겠다고 다짐했지만 오래 가지지는 않았다.

50을 바라보는 요즘 고양이와 인연을 맺었다. 6개월 전 중학생 딸이 아는 언니에게서 받아온 것이다. '코리안숯개'라는 품종으로 갈색 줄무늬 털을 가진 흔하치 않을 수 있는 놈이다. 알리지기 있는 아내와 아들 때문에 반대했지만 애들의 성화에 못이겨 '여리'라는 이쁜 이

어쩔 때는 매를치게 거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지만 재물을 피우는 모습을 볼 때면 눈 녹듯 후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무엇보다도 애들 정서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 감수할 만하다.

반려동물은 5가구 중 1가구가 키울 정도로 일반화 됐다. 한편에선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연간 10만 마리에 달한다고 한다. 광주에서도 매일 4마리 정도가 유기센터를 찾는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사라질 것이다.

/장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 1부 2200-661	경영지원본부 2200-515 <F A X 222-8005>	문화 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 부 2200-649	문화 2부 2200-651	광고매점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 부 2200-612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